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농 산업 경 제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20일(수)

의사일정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1면
2.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24면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25면
4.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46면
5.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60면

(10시06분 개의)

국장 전대식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조광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지형 탄소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윤세영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나인권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혁신성장산업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권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39쪽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그 항목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게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열위원 마지막 편에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그게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수소산업 생산클러스터 예타사업은 1000억 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아니, 이거만,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부안에서 8억…….

○최형열위원 얼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108억…….

○최형열위원 그러죠? 1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1일 생산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1t?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1일 1t 생산입니다.

○최형열위원 1일 1t?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최형열위원 이걸 하면서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도비.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인프라 구축사업이 3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형열위원 아니, 수전해 기반시설 부안에 하기로 한 거 말이잖아요, 그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도비가 18억…….

○최형열위원 예? 18억이 아니고……. 국장님! 됐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부안에서 하는 사업을 물으셨네요.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국장님,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데 있나요? 여기에 이 사업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수소산업은 미래 신산업이기 때문에 도내에 수소산업 기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구축을 통해서 외부에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내 기업은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미약하기 때

문에 아직 수소기업이 없습니다, 도내는.

○최형열위원 미약하기 때문에 참여 안시키는 거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아니,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소기업 자체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외부…….

○최형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도에서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런 기반을 통해서 트랙 레코드, 기술 트랙 레코드 쌓고 기반을 통해서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해야죠.

○최형열위원 도내에 R&D 기업이나 이 사업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나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고 기관이 있는데 본 위원 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걸 지금 테크노파크로 기관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열위원 이걸 국비 공모사업이고 우리 도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사업인데 도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또 참여를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약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그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위원님, 수소산업이라 함은 다양합니다. 우리 도내에 수소기업이 있기는, 예를 들어서 가온셀이나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저장용기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분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전해 기반 R&D…….

○최형열위원 알고 있어요. 물에서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 낸다라는 거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 기업은 아직 도내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따가 테크노파크 할 때 제가 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과 공모사업 획득해서 기관으로 위탁하고 그렇게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열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은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R&D 기업이나 이런 데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반시설 없다고 미약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약하지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니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런 기반을 통해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저희들은 촉진시키도록 노력할 거고요.

○최형열위원 그니까 도내에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나 그런 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정책의 입장이 그렇게 갖춰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도에서 그걸 계속 기관 위임하고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우리 도내 기업은 하나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설명을 좀 드

릴까요?

○최형열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아까 중첩되는 말씀인데 수소산업 기업들이 수소용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전지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전해 기반이 아직도 내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업이 없는지 다시 조사를 해 보고요, 있으면 참여…….

○최형열위원 없는지가 아니라 있는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있는지 찾아봐서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소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어서 탄소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전망 있고 또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은 탄소와 수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주력업종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탄소를 많이 강조하고 탄소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0년 6월경에 상당히 구미하고 탄소진흥원 유치에 불붙었었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로 탄소진흥원이 왔는데 그때 본 위원님이 자료에 나왔듯이 건의안도 했었어요. 이 건의안이 국회, 청와대, 산업통상진흥원을 통과해서 전라북도에 탄소진흥원이 유치가 됐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때 제가 5분발언, 건의안을 했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물론 노력을 했지만 실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탄소진흥원이 전북에 어쨌든 간에 유치됐어요.

이런 유치된 부분을 물론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해야 하지만 또 활용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원만 갖다 댔다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교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탄소를 일단 상용화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는 제품이라든가 기기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만이 현실적으로 돈하고 연결돼서 사업의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송하진 전 지사님께서 상당히 탄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탄소와 관계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최근의 자료 보니까 상당히 폐업이 5곳 그다음에 탄소사업을 포기한 기업이 14곳 그다음에 도외로 이전한 곳이 10곳, 기타가 3곳 해 가지고 탄소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 기업 데이터로 봤을 때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탄소소재는 전주 산업 트렌드가 미래친환경 스마트로의 전환으로써 핵심소재인 건 맞는데요, 이 소재산업이 미래산업이다 보니까 미래산업이 상용화까지, 사업화까지 가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한데 그런

기업들 차원에서 기술원이 있는데 사업화가 진행이 되려면 코스트 부분이라든지 R&D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혁신기관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원인은 사업화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업은 어떻게 이 아이템이 안 맞다든가 또 능력이 없다든가 부실하다든가 해서 포기한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도외로 이전한 기업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10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뭔가 안지 못하고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탄소에 관계되는 10개 기업이 도외로 빠져 나갔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이 다양하게 혁신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 부족한 경우는 기술력부터 지원해 줘야 되고요, 기업 애로기술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인센티브 부분이 라도 저희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혁신기관을 통해서 어떤 기업 지원 서비스사업을 더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탄소를 응용해서

만든 제품을 일단 우리 도내에서부터 구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탄소기술원 유치했고 탄소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탈기업이 생기고 폐업기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탄소용품 보급사업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공공구매도 지금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탄소제품 구입 지원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도 확보하고 규모도 늘려서 그런 수혜기업들이 많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저번에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2배 증가했는데 여기에 크게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은 다 다익선인데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8억에서 16억으로 증액은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터 확대할 수 있는 내년 부터 있는 방향 그리고 품목도 더, 현재 13개 시·군에서 9개 품목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우리가 유치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유치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 것을 만들어야만이 중요하잖아요, 그 노력이지.

그 노력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응용 또 거기에 대한 연구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만이 자리를 잡는데 지금 탄소산업, 탄소

산업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인지를 하지만 앞으로의 먹거리, 탄소에 대한 기대는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하지 않나.

그리고 탄소진흥원에 국장님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십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은 정책 파트너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하고 늘 같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렇게 정부기관이 와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수시로 가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탄소 산업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적극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탄소 산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장님, 김희수 위원님 발언 중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020년에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고 그 당시 전라북도의 최대 관심사였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그랬고 또 집행부에서 지사님도 함께해서 이게 유치가 된 건 사실인데 좀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단계인가요? 말하자면 수준으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기술력 수준으로는 빅4 안에, 빅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기술력 말고 실제적인 탄소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력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소재 부분에서 빅4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소재에서, 탄소섬유에서만. 완제품에서는 아직 사실은 정말 미미하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응용분야에서는 뒤지고 있지만 앞으로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위원장 나인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탄소바이오산업과장님!

해외 탄소 관련 전시회 같은 것도 있죠?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지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그런 데 혹시 가 보셨어요?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지형** 제가 올해 6월달에 왔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위원장 나인권** 국장님!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주력산업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인데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인 탄소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멍가게처럼 하지 말고 좀 더 대폭적인 지원과 예산투입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의 먹거리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완주의 권요안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윤세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원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원전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계는 이미 미래에너지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1대 팔려고 해도 이미 유럽에서는 수소전기차 아니면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가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이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도 신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나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을 26%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당초 플랜이 3020, 그니까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수소가 7.4%, 그니까 3020 목표가 20%거든요. 그런데 현재 7.4%이기 때문에 원전이 확대되는 26에서 30%, 그니까 4% 범위 내에서 설령 신재생에너지가 축소되더라도 20%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위축을 받을 수 있을망정 크게 우리 전라북도 신재

생에너지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아무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수소산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로드맵도 봤습니다. 로드맵을 봤는데 2025년도에 자동차 같으면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연기관차하고 수소전기차 가격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수소전기차를 탈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2025년도가 되면 수소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많이 있고 인프라가 많이 깔릴 걸로 보고 그때 가면 보조금을 중단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수소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 방향인데요,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시점 가서는 일몰로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2025년이나 2028년이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보급상황에서 아니면 기술력에 따라서 로드맵이 정해질 건데 현재는 2025년 이후로는 중단…….

아직까지는 언제 일몰제 적용 기간은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우려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빨리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일단 코스트를 낮춰 가지고 비용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R&D가 계속 진행이 돼

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권요안위원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는 수소차가 승용이 전라북도가 600대하고 버스가 17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보급이 됐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권요안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소차 승용이 463대, 버스 23대 이렇게 보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권요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소차에 대한 보급 대수가 줄어들었던 얘기죠. 그 이유는 혹시 무슨 이유…….

승용하고 버스 합쳐 가지고 작년에는 617대였는데 올해는 486대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답변을 국장님이 안 하시면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소차는 저희가 총 679대 지원을 했고요, 현재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는 390대 정도 했습니다.

그니까 상반기로 해서 산술적으로 곱하기 2 하면 70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하반기 추경으로 289대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추경을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총 775대, 그니까 작년보다는 약 100대 정도 늘어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게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가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이 올해까지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올해까지인데 지금 특히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집적이 돼 있는데요. 이를테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하는 회사 그다음에 활용하는 회사까지 다 진행이 돼 있는데 아까 최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질수소, 부생수소, 그린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주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생수소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예, 부생수소…….

○권요안위원 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런 방식은 신재생에너지이긴 하지만 그걸 수소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린수소로 가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새만금에 그린수소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빨리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깔아야 부생수소나 개질수소 생산을 줄이고 그린수소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완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개질수소고요, 개질수소 과정에서 CO₂가 발생을 합니다.

그 CO₂ 를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블루수소라고 하거든요. 블루수소까지 청정수소로 구분이 되는데 전라북도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린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통해서 그린수소로 가고 부안에도 1t 규모의 소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으로는 청정수소로 갈 겁니다.

○권요안위원 그래서 새만금에서 그린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특히 완주 쪽에 있는 공장에서 저장·운송하는 공장, 활용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연계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를 생산해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수소 전주기적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린수소 생산 그리고 운송·저장, 활용까지 연결시키는 전주기의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단계별로 갈 겁니다.

○권요안위원 예, 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언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역공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지금 완주가 그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가 할 것 같으니까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정 신청은 해야 됩니다.

○권요안위원 아니 그니까 전라북도에서 완주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

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써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의 안전성 문제거든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시범사업 안에도 수소체험관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체험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시범사업이라는 건 안전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수소에너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거든요. 그 센터가 빨리 구축이 돼서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그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요안위원 그니까 완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허가가 두 군데가 나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봉동 둔산리에.

그런데 주민들이 수소가 폭발할 수 있다, 수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가 허가가 났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수소폭탄, 수소폭발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이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이런 인식을 빨리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아까 수소체험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통해서 수소의 안전성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수소를 체험하고 홍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소테마파크가 완주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완주군과 함께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어쨌든 전주·완주는 수소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 기획단계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촛촛히 살펴보고요, 사업성이 있거나 앞으로 갈 방향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좀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위원 보조자료 110쪽에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이 있어요.

탄소분야 대학 특화연구소 집중 지원 그래서 고급인력 양성, 또 산학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10쪽, 보조자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110쪽이요?

○오은미위원 예.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사업주체는 전주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논문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67건, 현재.

○오은미위원 67건이고요, 거의 70건이네요, 올해까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오은미위원 그리고 또 특허출원이 42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술개발하고 나서 이게 사업화가 되어서 매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화까지는 사업계획이 없는 거고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이 논문하고 특허출원하고 인력양성이 고급트랙, 인력양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는요.

○오은미위원 기술개발을 하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기술사업화 문제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해서 대학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서 기술투자라든지 사업화 방안이 다음 단계로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2016년도부터 되어 있었으면 벌써 6년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화된 것이 없었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은미위원 논문도 70건이나 되고 또 뭐예요, 여기 특허출원도 42건인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이 보니까 응용분야 기술개발을 통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모터, 히터 이런 제품들을 사업화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아, 있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오은미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고급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30명 했고 올해 또 20명을 양성한다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 도내에 탄소기업들 있죠. 그런 데에 연계해서 취업이 되고 있는지 그냥 인력양성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분들이 졸업해서 학위를 받고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제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지고 기술개발된 것은 사업화가 할 수 있게 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된 부분에 대해서 도내 탄소기업들이 많이, 아까도 폐업한다든지 도외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출발을 힘차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전히 뭔가 원래의 의도했던 바하고 많이 다르게 가고 있다. 그러는데 많은 국비 들여서 대학교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걸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기술은 기술개발했으면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인력양성했으면 그 인력이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사후관리라든지 그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예산 낭비가, 특히 대학교에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학의 양심이나 이런 거에 맡기고 그냥 거기에 맡기고 있는, 여전히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도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금 전문인력 양성된 분들이 그 이후에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도내의 탄소기업들, 업체들로 취업된 분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자료들을, 그리고 아까 기술개발해서 사업화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실적들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가 주력산업이긴 하지만 이게 꼭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기도 하긴 하겠지만요, 도내의 자동차업체가 많이 감소되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이런 상황이 잦아요.

그래서 많은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지금 보면 올해 업체가 자료에 보니까 506개, 인원이 1만 874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업체 현황이.

이게 보조자료 7쪽에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오은미위원 그나마 우리 전라북도가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이 거의 94%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수출 실적이라든지 세계 여러 불황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 가지 감소되고 이런 원인과 대책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소가 된 이유는 GM대우 철수 이후에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용차 중심이기 때문에 상용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지원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체부품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에 차가 친환경, 스마트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전환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굴하고 있고 사업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미위원 친환경 미래차 이야기를 하고 또 그쪽으로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업체와 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서 가야 될 그 업체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사업 전환을 통해서 대체, 저희들이 다른 콘셉트를 하나 잡고 가는 것이 대체부품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 영역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전환, 그니까 미래산업 트렌드에 맞는 사업 전환을 촉진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군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소멸위험지역 보면 군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면서 많은 인원 이동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 단위 군산도 그렇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뭔가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기업에나 지역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그래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특히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현대조선 조업 중단, GM대우 철수로 인해서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산업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정부 차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올해 또 1년 연장해서 내년 4월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도 차원에서
도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사업들, 조선산업
의 재건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하
고 있고 사업화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물론 기업이 있어야 거기에
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또 우리가 늘 기업의 입장에서만 많이 바라
봤었어요, 그동안에.

집중이 됐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쩔 수 없
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래
도 나름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일을 하였던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리고 기업에서 해고되었으니까 그걸로 끝나
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뭔가 어떤 배
려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
나.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펴 왔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왔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너무 조금 무심했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하루아
침에 일자리를 놓쳐 버린 이런 분들에 대해
서 새로운 방식의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은 있으신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위원님 잘 아
시다시피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은 산업기반
조성이 주목적이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인프
라 구축을 연계해서 기업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그 외에 일자리 창출은 일
부 신산업이라든지 혁신산업 쪽에서 일자리

지원사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직장을 잃고 어려
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는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오은미위원 일자리 잃으신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구성원, 이런 가족
들의 여러 가지 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
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게 필요하
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구체적인 예산을
통해서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인 치유라든지
뭔가 이런 나름 새로운 뭔가 지원책을 고민
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본부에서 별도로 추진하
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 한번 같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산
업이 주력산업이고 앞으로는 탄소산업도 우
리 미래에 추구해야 될 그런 산업이긴 하지
만 우리가 투자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
이 더디고 우리 마음과 의지와 뜻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가는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전에 수소버스 관련해 가지고 보급 관련한 질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시내버스나 이런 데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당연히 로드맵이 있습니다. 저희들 연차별로…….

○서난이위원 예, 그런데 로드맵이 있는데 실제 지금 버스가 지원되는 현황들을 보면 얼마나 달성률이 있게 진행되고 있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우리가 2030년까지 수소 상용, 승용…….

버스는 400대를 보급할 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서난이위원 달성률. 그니까 400대 보급인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아, 지금 현재까지의 보급률이요?

버스가 22대.

○서난이위원 왜 그렇게 달성률이 미비한 거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다 지원책이 있는데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없었던 거고요.

충전시설도 삼천충전소가 시작으로 해서 마련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충전소 보급도 같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급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서난이위원 사실 완주에서 버스를 생산하고 있고 이걸 지자체에서 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30년까지 가더라도 400대 보급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 그게 고민이고, 또 하나는 너무 법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게 지금 완주에 생산 관련해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통학용 버스나 관광용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맞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보조금 지급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그것은.

○서난이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런 법제화도 노력을 해야 실제 수소버스를 요구하는 수요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만이 그런 로드맵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세 번째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게 더 빨리…….

○서난이위원 그게 언제 자료인데 지금 세 번째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인천이나 충청도, 울산, 경남 이쪽 발표에서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렇지 않고요, 지금 경기하고 전남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현재…….

○서난이위원 보조금액이 많은 거지 지원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보조금액

이 세 번째로…….

○서난이위원 그니까 실제 보급 자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지원이 늦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수요라는 건 사실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행정이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가 그런 예산 수립이 미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렇죠. 시·군에서 수요가 오면 도비 매칭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보조가 들어가는 건데 수요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하고 또 이게 어쨌든 전라북도의 먹거리산업 쪽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북이 조금 더 견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소도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전라북도가 그 이미지를 계속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여러 가지 의지라기보다도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소 보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다 폐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내구연한도 기다려야 되고…….

○서난이위원 국장님, 계속 매년 내구연한 돼서 폐차되는 차량들이 많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리고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하고 내구연한하고 같이해서 정책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난이위원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인프라 구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주·완주 빼고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보여요, 다른 지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가 사실 전라북도 산업을 위해서라도 계속 의지를 내고 노력을 해야 완주공장의 생산량도 늘어나는 거고 또 우리가 수소도시라고 선언했을 때 지자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22대 보급하고 수소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보급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군과 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서 시·군과 수소산업정책협의회라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보급사업도 빨리 추진해 달라는 협조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난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수요가 없진 않을 텐데 법제화나 이런 부분들 푸는 노력들도 같이해서 수소차량들이 꼭 지자체 안에서의 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보급될 수 있어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군산의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자에 오은미 위원님께서 우리 군산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참 가슴이 아쁩니다.

우리 군산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우리 군산 관련해서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산이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군산 관련해서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많습니다.

○**김동구위원** 오늘 제가 앓는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동구위원**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 있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국도비 매칭하도 기업이 많아 가지고 그걸 정리를…….

○**김동구위원** 매칭이 많이 있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사업을 하나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서 사업 추진하게 되

면 사업성과평가를 꼭 합니다. 그 사업평가, 목표를 처음에 설정해 놓고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됩니다.

○**김동구위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해 주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런 경우는 사업점검, 지도감독을 통해서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만…….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해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렇죠,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동구위원** 있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사까지 하고 있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지자체에 이전해 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지도감독도 하고 우리는 총괄적인 지도감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면 아까 기업이 많아서 답변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가 거기가 어딘가요? 여기 신재생에너지과장인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전부 모든 과에 다 걸쳐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별로 다요.

○**김동구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료가 완성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모든 사업 다 스크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정확한 말씀 드리겠지만 사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걸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게 불거져 나온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목적에 맞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가가 싼데 얼마나 찻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분양이요?

○**김대중위원** 예.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5개 필지에서…….

○**김대중위원** 전체 몇 %가 찻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분양률이요?

○**김대중위원** 예.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금 2개 섹터가 남았는데 면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이 3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 52%…….

○**김대중위원** 예?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52% 분양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준공이 됐었어요? 산업단지가.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준공이 2022년.

아니 공장 건물인데, 이걸.

○**김대중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2015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2015년도 그러면 지금 7년 이상이 지났는데 분양률이 52%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뭘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은 여러 방향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입지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지는데…….

○**김대중위원** 입지적 조건 다 따져서 오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미 분양 MOU까지 다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또 나가고 해서…….

○**김대중위원** 그런 이유, 일자리분부하고 기업유치하고 여기하고 다 말이 안 맞고 다 엇박자가 나요. 혁신성장국이라면서요. 혁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대중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분양률이 5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말만 혁신이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허브단지 거기에는 사업주체가 산학융합원인데 이 비영리단체에다가 단독적으로 이런 사업을 줄 수 있어요?

사유가 뭘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이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위원** 법적 근거만 말씀하세요, 법적 근거만. 여러 말씀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요, 이렇게 비영리기관에 단독적으로 사업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그건데요.

○**김대중위원** 보조금 관리에 의한 뭐요? 한번 읽어 보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김대중위원** 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자치단체장은…….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뭐 저기 감사 때 얘기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위원님, 제가 잠깐, 두 가지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김대중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산업직접활성화…….

○**김대중위원** 자료로 주시라고, 자료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한번 여쭙볼게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중학교에 있는 다목적 체육 시설 지어 주고 키즈복합센터 지어 주고 어린이생태체험장 지어 주고 이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이에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정주여건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김대중위원** 정주여건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정주여건까지 고려해서 하는 부서입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이 혁신

신도시…….

○**김대중위원** 아니, 혁신성장국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정주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을 하시냐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행정기구 사무 설치 조례에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요.

○**김대중위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번에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하면서도 정주여건까지 우리 혁신산업 쪽에서 해야 되냐는 문제는 다시 조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걸 우리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지!

하는 이유가 뭐의 16조인가는 모르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니 다목적체육관, 키즈센터,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국장님!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전라북도의 혁신성장국에서 도민들 정주여건까지 고려했습니까? 아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써 놔놔야요. 제16조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 사업들을 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놔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게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지!

이게 법적 근거예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혁신도시 정주여건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을, 정주여건이 아니라 여기 기반시설 얘기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런 사업을 했다고 여기에다가 제16조에 썼잖아요.

뭔 16조예요? 이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런 사업들이…….

○김대중위원 무슨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재정법이에요, 아니면 혁신도시법…….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혁신도시법입니다.

○김대중위원 혁신도시법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혁신도시법?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어지간히 해야죠, 어지간히.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조자료 5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2021년 10월달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

○김대중위원 주민참여예산 확정. 이게 뭐예요? 주민참여예산 확정.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예요?

보조자료 50쪽.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시·군별로 이렇게…….

○김대중위원 의원 재량사업비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구체적으로 말씀…….

○김대중위원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이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참여예산 확정 이거 얼마였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도비 3억 5000…….

○김대중위원 예?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억 5000 들어갔습니다.

○김대중위원 3억 5000인데 주민참여예산이 3억 5000이에요, 뭐가 3억 5000이에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주민참여예산 총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요, 이 사업에서…….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 명시를 해 놔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이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

○김대중위원 3억 5000인데 주민참여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3억 5000.

○김대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이 3억 5000이 들어갔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이 지역의 의원이 누구입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건 제가…….

○김대중위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이것을 도의회 업무보고 책자에다 넣어요? 이것을 빼든가 해야지 이런 거 사업을 갖다가 이것을 혁신성장국에서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여기서 업무보고 책자에다 넣냐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표현의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혁신도시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땅 조성이라 그런 것이 언제 됐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2016년도.

○김대중위원 2016년도에 왔다고요? 조성? 땅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준공이 2016년도에 됐어요? 그전에 안 됐습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2016년도에 됐으면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뭘 하면 보통 5년에서 7년 이 정도에 있어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우리 A/S 기간도 3년에서 5년 아닙니까. 그거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 시기를 지났는데, 아니 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뭐예요? 만성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여기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의 이용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니까 지방비 매칭하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혁신도시 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김대중위원** 아니 체육관을 지으면 교육청에서 지어야지 왜 도비를 주냐고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체육관 짓는데 도비 주는 역사가 어딴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보고요, 지역주민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전용 체육관 같으면 몰라도…….

○**김대중위원** 어디 학교가 지역주민이 체육관 안 쓰는 데가 어딴습니까? 지역주민이 다 배드민턴 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저희들은…….

○**김대중위원** 그런데 중앙의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면 지방비 매칭하라고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에 이거 명시했어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명칭 해서 조건부로 달았습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이 조건으로.

○**김대중위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는 지방비 부담하라고? 어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학생 전용이 아니고 주민이 이용하는 다목적시설로 한다는 조건으로…….

○**김대중위원** 거기는 학생 전용 체육관 없어요? 만성중학교는.

말씀 똑바로 하세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혁신이면 정말 전라북도 산업을 어떻게 해서 다시 다변화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나 도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혁신성장을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다른 거 하나 여쭙볼게요.

그나마 보다가 기분 좋은 거 하나 있네, 성과기금 조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 없는 동안에 연장은 하셨고만. 이거 예산 어떻게 쓰시려고, 10년 하면 만기 되면 끝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달성되면 그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볼게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라북

도하고 군산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같이할 수 있어요? 뭘 법인도 아니고 민간사업자…….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민간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김대중위원** 국장님!

어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까지 사 주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 다 매입하고…….

○**김대중위원** 당연히 부지를 매입하니깐 그 위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리는.

○**김대중위원** 그래서 땅까지 사 주는 데는 없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땅 사 주는 게 아니고요.

○**김대중위원** 아니, 땅 사 준대요, 지금?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수출복합단지 내에 공공영역이 있고 민간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지 민간영역에다 공공재원을 투자는 않고요,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재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김대중위원** 공공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공공영역 부분은 서비스지원센터라든지 비즈니스센터 같은 거 이런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공공영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행정지원센터라든지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김대중위원** 여기 이 두꺼운 책자에 다 보시면 뭘 센터 구축, 장비 사는 거, 테크노파크, 다 위탁. 사업을 다 주시고 우리 혁신

성장국에서 자체 사업은 혁신도시 중학교 정주여건 하는 거 딱 하나 저는 그거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김관영 도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겁니다. 정말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혁신성장국에서 이전보다 더 혁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SK데이터센터는 협약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지금 데이터센터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전에 한번 사업을 취소하냐 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취소요? 투자 취소요?

○**서난이위원** 예, 작년에 한 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일부 언론에서는 SK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어지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늦어지니까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데 실제로 SK데이터센터, 창업보육센터 구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

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인센티브 사업은 전력 개통 문제라든지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조속히 처리를 해서 해결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 이전에 삼성 관련 투자 관련해서도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이 과감하게 내어 줄 건 내어 주고 진행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필요합니다.

○서난이위원 그리고 이번에 투자나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전에 혁신성장산업국에서 기본계획이나 연구계획을 수립했던 걸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3건이 왔어요. 하나는 테크노파크가 했었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하나는 에너지 관련인데요.

제가 사실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전라북도 안에 애정이 많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 속상했던 건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 이번에 반도체 특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떤 산업을 미리 대비해서 선언하고 끌고 가는 게 사실 전라북도가 그런 것들이 있었나가 좀 고민이었어요.

광주 같은 경우도 AI 도시 선포도 했었고 그러면서 산업들의 비전을 만들고 끌고 가는데 전라북도 안에서는, 많은 청년들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새만금 말고는 따로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없을 거고 그런 박탈감도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부처나 다른 데서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북에서 연구계획이나 용역을 줄 때 대부분 전북 내의 기관 간만 한다. 그니까 전북대나 지역 내의 대학, 전북연구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렇게.

그런데 실제 지역이 나아가야 될 산업의 방향은 이걸 사실 외부로 풀어서 고민을 할 지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왜 해외와 컨소시엄을 해서 연구용역을 할 고민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에 나오는 먹거리산업, 그리고 전라북도 안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8년 안에 있으면서 사실 계속 비슷한 사업들이 그냥 계속 8년 동안 반복되더라고요. 그니까 정말 새로운 비전이나 이걸 정말 전북이 무모하더라도 해 볼만한 지점들이더라는 것들이 사실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우리 전북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이야 1번지라는 건 진작에 대내외적으로 공포가 됐었고요, 재생에너지 1번지라는 것도 전 대통령이 오셔서 비전선포도 해 줬고 서남권 해상풍력이라든지 굉장히 리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묻힌 것 같아서 아쉽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어떤 공모라든지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쭉 해 오고 있고요.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지역 상황을 잘 아는 파트에서 하는 것이,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까 위원님 말대로 전국 베이스로 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기관들

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만드는 게 중요한지를 저희도 나름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말씀이 사실 계속 전라북도의 연구용역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역 내에서 계속 했었던 건데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그런 경우도 있었습시다.

○서난이위원 제 얘기는 우리 지역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산업을 끌고 갈 거를 고민해 본다면 컨소시엄으로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나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 산업구조를 바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 고민을 해 봐요. 그래서 한번은 틀을 바꿔보는 도전, 모험이나 도전을 하지 않는 전북에서 그런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제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으로 오히려 부탁하고 싶은 지점이거든요. 한번 한 가지 정도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탄소도 말씀하시는데 탄소산업 했을 때 정말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생각보다 너무 미미했다는 점, 사실 그거는 정말 우리의 100년 먹거리를 끌고 갈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리고 수소나 이런 것들도 보면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얘기하지만

실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속도는 오히려 타 지역이 훨씬 빠르다고 봐요.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전남, 광주 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선포하고 그다음에 뒷받침해서 끌고 가는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이런 부분은 어쨌든 도지사님도 기업을 유치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또 의회에서조차 진짜 이번만큼은 같이 뭔가 해 볼 수 있는 의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하고 싶은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군산 풍력발전 관련해서,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 관련 새만금 내부의 여러 가지 현재,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까지 오셔서 비전선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대중위원 하나만 짧게 한번 여쭙볼게요.

○위원장 나인권 예.

○김대중위원 소부장 펀드도 여기신가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소부장 펀드?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타도는 소부장 펀드가 한 업체한테 얼마까지 최대 지원되는지 아세

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타 지역이요?

○**김대중위원** 예.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타 지역까지는 제가…….

○**김대중위원** 아니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옆 동네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가는 아셔야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도 50억씩 지원해 줍니다, 최대. 우리 전라북도는 최대 20억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기업이 안 와요.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지사님도 이 펀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다면서요.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김대중위원** 그거 하시니까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

○**위원장 나인권** 이어서 의사일정 2항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전대식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아마 논의한 걸로 아시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위원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재, 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뿌리기술,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범위 확대 등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뿌리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인권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대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나인권 의사일정 제3항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군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군의입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 전북의 재도약과 발전에 기여해 주실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테크노파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신진욱 실장입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유기현 단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정책과 최창석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테크노파크는 민선8기 도정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스마트산업 분야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북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 하반기 주

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인권 양군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양군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은요, 전라북도의 산업과학기술의 혁신거점기관으로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신기술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형열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사업 목록 있죠? 정부사업.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목록하고요, 지역업체에 정부과제나 이런 위탁기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기여한 그런 현황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한 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하고요, 전주·완주 수소시범사업에서 도내 사업체의 참여현황,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도내 산업체 육성

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예,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요?

○최형열위원 예.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다 알다시피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는 수소를 통해서 주거 교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를 적용해서 지역특화산업과 기술융합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시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완주군 봉동에 관련된 수소용품 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사용후 연료전지 구축을 통하고 있고 또 완주군 일부에 일진소재머티리얼즈에서 수소고압용기 평가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 회사에서 수소용기를, 수소라는 것은 고압이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고압과 고온에 견뎌낼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진머티리얼즈에서 저희가 센터를 도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는 그걸 통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든가 그다음에 해외에 수출한다든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부안에다가 그린수소 생산기지사업 하잖아요. 그 예산이 총 얼마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그게 지금 예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예산으로서…….

○최형열위원 수전해 시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군의 수전해 기반 구축사업은 114억인가요? 그 정도로 해서 현대건설이 참여해 가지고 물을 분해해

서 수소…….

○최형열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요.

우리 도내 업체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도내 업체 거기의 참여조건이 대응투자가 있는데 대응투자가 많아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응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또…….

○최형열위원 그것 때문에 도내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니까요, 담당…….

○최형열위원 원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 막대한 예산이 참여하고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 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아까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지역업체의 활성화, 지역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그걸 지금…….

○최형열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뭐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게 전국 규모로 공모를 했거든요.

○최형열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잖아요, 원장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현대건설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형열위원 그건 그렇게 하겠는데…….

○위원장 나인권 원장님!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더라도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 중요한 사항을 자꾸 떠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원장님이 직접 설명 듣고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현대건설에서 그걸 하자고 저희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최형열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형열위원 우리 도내에서 업체나 연구기관에서는 제의한 것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최형열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로 가져온 건 알고 있고요, 원장님.

도내에 우리 부안에다가 그 기지를 건설하는데 도내 연구기관이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또는 의사를 개진한 데가 하나도 없었던 말입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 원래 참여조건에 대응투자가 많아서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형열위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기준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선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술력이 거기에 미흡하고 그리고 대응투자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형열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형열위원 ‘알기로는’이면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얘기에요, 아니면 어떻게 알았다

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요, 책임 있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별도의 선정기준 없답니다.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혁신성장산업국에서 기관 위탁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형열위원 그 과정에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했던 연구기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업체에서 그 기업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대응투자의 능력이나 여력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나 그런 것들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타 지역의 업체인 현대건설, 건설하고 또 어디에서 컨소시엄을 합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하고…….

○최형열위원 테크로스라고 하는 데서 하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형열위원 예, 그러니까요.

특별한 선정기준이 없다면 우리 도내 업체를 참여를 시켜 주시지 그러셨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앞으로 이 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기간이 짧아 가지고 아마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형열위원 아니요, 그 여력이 있는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나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기반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위원님.

○최형열위원 이렇게, 잠깐만요, 원장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형열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애써 가지고 도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국책사업을 따 온 것까지는 좋아요.

좋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또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런 연구기관이나 그런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나 도정에서 기업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유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대응투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최형열위원 대응투자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다음에는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아니 이번 거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이번에는 결정을…….

○최형열위원 도비도 들어가고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에 보면 R&D 기업을 뭐 혁신생태계 구축을 하고 뵈을 하고, 굉장히 이것만 보면 앞으로 그 분야에 그 산업에 관해서는 걱정할 게 없을 것같이 이 계획이 찬란한데요. 실상 내용은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걸 ‘알

기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어떤 상황이나 현황들을 보고하고 그러실 때는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알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추후에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서 그러한 가지 여쭙볼게요. 이걸 아마 전 부서가 거의 해당될 거예요.

원장님, 공공재정환수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지 아세요?

얼마 안 됐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걸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허위청구나 또는 과다청구, 또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재정환수법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쪽에 이게 아마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

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명의로 나가는 금액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

○김희수위원 올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출연금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1139억 1275만 원 정도입니다.

○김희수위원 1139억 정도가 보조금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출연금은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김희수위원 출연금, 보조금 합쳐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 출연금으로 주는데 우리가 물론 검토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허위청구가 많다는 거예요. 또 과다청구도 있고 또 그 돈을 목적 외로 청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노하우라든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지역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기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고객, 기업인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

고 제 자신부터 그런 걸 솔선수범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좋은 마인드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허위청구 금액과 또는 과다청구 금액을 알고 계세요? 그건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걸 자료가…….

○**김희수위원** 이것은 제가 일단 3년 치를, 3년 치가 아니네요, 2년이네요. 2020년부터 제정이 됐으니깐 2년 치를 허위청구, 과다청구, 또 목적 외 사용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2쪽에 보시면 참여기업이 자부담 없이 다른 사업과 형평성 없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홀로그램이라는 그 단어를 저도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일 텐데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홀로그램이요?

○**김희수위원** 예.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홀로그램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실물과 같이 형상을 구현하는 게 홀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찍어서…….

○**김희수위원**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하게 빛과 소리를 융합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비슷한 게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홀로그램 콘

텐츠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도내에 홀로그램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주로 익산에 홀로그램 지원센터가 구축이 돼서 거기에 창업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 수는 10여 개 정도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홀로그램 프로그램 기업은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앞으로 좋죠. 앞으로 4차 산업 디지털 대전환에서 모든 게 메타버스 이래 가지고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홍보하고 실제 기업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런 거 프로그램, 또 다른 시도나 다른 업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창의성을 부여해서 우리의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홀로그램 콘텐츠라는 이 마케팅 사업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이 주제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전라북도의 홀로그램 콘텐츠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예산도 필요하겠죠. 예산을 지원받아서 좀더 관심 있는 사업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나인권 예, 보충질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원장님,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셨는데요, 홀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국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10여 개 입주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거의 국비 지원이나 이 지원으로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과기부나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도 보면 홀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는 입주기업들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담보가 되는 건지, 그만큼 국도비를 해서 육성한 10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자생력이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처음에 스타기업이라는 게 성공하고 실패는 다반사니까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아마 이쪽에 디지털 쪽에는 약하긴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그쪽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지원도 하고 그리고 관심도 가지고 계속 현장을 투어해서 뭐가 부족한가를 캐치해서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니까 비전을 어떻게 보시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원이 끊긴 다음에, 이걸 사실 전반적으로 국가산업 예산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중단이 되면, 그니까 사업이 지원기간은 거의 끝날 때쯤 되고 하니까 그럼 그 이후의 단계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중단되면 안 되죠. 계속 과기부 쪽에 찾아다녀서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 노력을 해야죠.

○서난이위원 그니까 노력과 이런 거와 다르게 정부가 바뀌고 과기부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기조가 변경되면, 실제 그렇게 변경되면서 사장되는 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이 홀로그램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실제 이런 중단, 노력해 가지고 안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단계적인 게 전라북도 내에서만 계속 육성을 하겠다, 지원을 가겠다 이런 그림이 있는 건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렇지 않아도 이쪽은 우리 새로운 신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XR을 소부장이라고 하고 AR하고 VR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소부장 기술, 그 안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융합센터장도 모셔왔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만금에 디지털 혁신지구도 구축하려고 예타에 노력 중에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합해서 아까 메타버스라든가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융합해 가지고 육지 쪽으로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성장상으로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번에 국정과제가 110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엄청 노력해서 그 과제를 일일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공부를 해서 여기서 14과제를 도출해서 그게 9400여 개거든요.

그래서 9400에 아까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희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옆에서 협조하고 지원사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원장님은 홀로그램 관련해서 어차피 이 지원사업들이 시장경쟁성이 앞으로 담보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서난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군산 출신 김동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경영평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무슨 등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4등급 맞았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는 연속으로 다등급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라 등급 받았죠? 4등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그리고 중기부 경영실태평가에서는 2020년도 A등급이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동구위원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채널이 다양하지 않고 대면면담 등에 치우치고 있으며 온라인 설문이나 불만사항 접수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게 경영평가의 만족도라는 것이 조직문화 개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뭔가 10년 전에 감사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기관경고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1등급이 내려가 가지고 저희들이 다등급 맞았다가 나등급이 됐고 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중기부의 평가에도 B등급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최고의 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 제가 지금 전국 테크노파크의 진흥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테크노파크를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력이 12위, 13위인데 이걸 갖다가 10위, 7위로 올려서 지역의 뭔가 성장동력을 키워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신 있으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최선을 다해야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제가 이 부분 계속 지켜보고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 솔직히 이러한 분야에 전국 1등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꼴등이 됐는데 저 자존심이 엄청 안 좋아요. 20년간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전국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 동네가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는 몸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가능하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올해 테크노파크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1500억 정도입니다.

○김동구위원 1500억이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예산 규모로는 출연기관 중에서 참 덩치가 커요. 그렇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일 많죠.

○김동구위원 인원도 167명으로 참 많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자신 있게 이런 부분 도와달라고 호소하십시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가능하시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동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위원 테크노파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장비 구입 예산이 설정이 돼 있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시책사업으로 따 가지고 거기에서 계획된 방향대로…….

○오은미위원 올해 그러면 장비 구입 계

획이 없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올해는 없습니다.

○오은미위원 올해는 없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은미위원 그런데 보조자료 17쪽에 보면 장비 구축 현황이 나와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181종, 242억 원어치 되어 있고 또 테크노파크만이 아니라 도내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에 한 2000여 개가 넘는 장비가 있고 그게 또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장비가 우리는 장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건데 지금 장비 활용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도 장비구입심의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 장비라는 것은 정말로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활용해서 R&D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잘 쓰지 않는 10년, 15년 넘는 장비들은 어떻게든지 불용처분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뭔가 하려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소리 듣지만 엄격한 에프엠대로 해서 제대로 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제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장비 때문에 평가를 불리하게 받을망정 제대로 해서 5년, 10년 후에는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처분 중에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27종에 소프트웨어 2종이 있고 실제적으로 25종이 지금 불용처분 중에 있는데 한 절반은 지금…….

○오은미위원 올해만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오은미위원 작년에는 좀더 넘었잖아요, 90…….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작년에는 못했죠. 올해는 제가 어떻게든 하게끔 해서…….

○오은미위원 작년에 보면 여기 93종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저희 기관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는 상반기 10개 기관에 불용처리 장비가 62점을 했답니다.

○오은미위원 올해, 아니 작년에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2022년도 상반기에.

○오은미위원 2021년도에는 총 93건으로 되어 있고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장비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구연한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내구연한들이 장비에 따라서 10년도 있고 대개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컴퓨터 같으면 5년이면 내구연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넘으면 거의,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발전되니까 장비가 그만큼 노후화돼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장비가 오래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오은미위원 이런 게 지금 다 오래됐어도 사용이 가능한 거,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거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오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불용처분하고 하다 보면 매각할 수도 있나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러니까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한 두 달 동안. 그래서 거기서 누가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매각보다도 이걸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하고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인터넷 띄워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몇 개월씩 걸려서 들여야 하니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오은미위원 어차피 그것도 기계라는 건 장비는 놔두면 놔둘수록 효용가치가 계속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잘못하면 천연기념물 돼요, 천연기념물.

○오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기관하고 대학에 보면 2000여개 장비가 있어요. 거의 액수로 따져도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국가보조를 받아서 국비사업을 따 가지고 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도내 기업들은 이런 장비 하나 구축하려는데도 일단 비싸고 그리고 뭔가 활용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기관이 또 다르고 이러다 보면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자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장비활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업들한테 공개를 해서 어디 혁신기관에 어느 장비가 있고 어느 대학에 어느 장비가 있는 것들을 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알 수 있고 언제 이걸 예약할 수 있는가 이게 다 돼서 그것도 국가장비연동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연동해서 여기가 없으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테크노파크의 차별화고 테크노파크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해서 정말 신뢰성 있게 일하자 해서 엄청 고생하고 지금 구축 중에 있어서 좀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은미위원 구축을 하고 그런 장비들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게 한 60~61% 정도 되는가 봐요. 혁신기관 하는데 어떤 대학 같은 데는 약간 낮고 그래서 평균, 하여간 장비가 어떤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안 쓰고 여러 가지 기업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장비에 관련된 직원들이 빠져 나가고 해서 활용이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은미위원 정말 기업들에서 이 장비를 꼭 활용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상황도 있나요? 활용을 못 하는 상황.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가 오면 10억, 20억 정도 되면 그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1~2개월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래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교육을 받아서 자기 것이 되도록 마스터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천연기념물같이 되면 안 된다. 고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해서 일정을 나한테 석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장비 활용을 위해서 장비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9회 했는데 13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니까 평균 한 15명 이 정도 참여를 해서 하는데 사실 교육했으나 참여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장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력들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 인원이 15명 정도라는 것이 원래 많은 수인지, 원래 여기에 있어서. 아니면 적은 숫자인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니까 새로운 장비가 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장비 인력도 있고 그 장비를 사용하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들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끔 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주로 장비 담당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오은미위원 예, 그게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장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어차

피 그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서 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열어 주셔야 되겠고 또 장비 활용에 있어서 기업들이 장비 활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희들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니다, 장비 활용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은미위원 그러면 장비에 따라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장비 사용료의 7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오은미위원 70%를?

그러면 제일 고가의 장비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너무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오은미위원 그냥 제일로 고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2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있는가 봐요.

○오은미위원 아, 200만 원까지 한도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실 대부분 활용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죠, 영세하죠.

○오은미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건 사실, 물론 최고액이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 가지고 이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낮춰서 기업의, 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래서 70%를, 예를 들어서 부담이 100이라면 70%

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올해는 그 지원률을 80%로 더 높였답니다.

○오은미위원 10% 더 해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오은미위원 그래도 뭔가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시고 계시네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오은미위원 그니까 이렇게 많은 장비가, 장비가 없어서 뭘 못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그때그때 구입하고 하실 텐데 이왕이면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런 장비를 언제 어느 때라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원장님께서 잘 따져 보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왕이면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을 해야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뭔가 이게 노후되고, 그리고 장비들을 이왕이면 필요한 부분에, 아까 증여라는 건 무상인 거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오은미위원 무상이죠? 필요한 장비들은 인심 쓰듯 많이 나눠주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하고 싶은 말씀이요?

○오은미위원 예, 더 추가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국가장비도 내 살림이고 내 것이다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잘 활용해서 기업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와서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잘 지원하네 그런 소리를 듣게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당부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항상 저희들이 아침마다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너무 또 매일 강조하다 보면 그게 또 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은미위원** 한 가지 제가, 이걸 우리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많은 국비 예산을 공모해서 따 가지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하여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또 성역 같아요.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양심에 호소를 하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진짜 국민들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해라.

그런데 사실 심심치 않게 그런 연구라든지 국가 보조 받아서 연구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수로서 CNC 기계 생산자동화, 금형 그쪽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실제 그걸 다뤘고 학생들을 지도했고 조교, 대학원생, 통반

장 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누구보다도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기업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일취월장하고 매출 신장하고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연구기관들도, 특히 대학에서 정부 돈은 눈 먼 돈, 먼저 가져오는 게 임자다 이러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우리 기업들, 도내 업체들은 오히려 거기에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무한한 예산이 가고 뭔가 연구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데 실제 기업들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은 또 많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그 간극을 잘 매꿔 주시면서 또 그것들이 서로가 원만하게 잘 활용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정말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네요.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열**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홀로그램 센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마 한 군데라고…….

○**김대중위원** 대구에 있죠, 경상도에.

○**집행부석에서** 대구에는 홀로그램 센터가 아니고요.

○**김대중위원** 이거 같은, 연계된 거 대구에 없습니까? 경상도에.

○**집행부석에서** 디바이스센터라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아니고요.

○**김대중위원** 사실 홀로그램산업을 신산업이기 때문에 경상도 국회의원이 반절 뺏어간 게 그거예요.

원래는 전라북도하고 이 지역들에서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이 홀로그램, 정부에서 하는 첫 사업을 전북으로 따 왔는데 하도 좋은 사업이니까 경상도 국회의원이 반절 뺏아간 사업이라고요.

홀로그램으로 만든 영화 보셨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홀로그램으로 만든 영화 보셨냐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가 미국에 실질적인 홀로그램을 보고 왔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김대중위원**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의회나 바깥에서 무슨 산업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딱딱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도 평가에서 계속 받았으면, 성과금 못 받았겠네요, 한 2년간.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올해 평가가 실질적으로…….

○**김대중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성과금 못 받으셨겠어요, 직원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못 받았죠.

○**김대중위원** 죄송한데 여기 원장님 언제 테크노파크 오셨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2020년 4월 20일 자로.

○**김대중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

만 평가할 때 성과금은 센터장님들도 포함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다 포함돼요.

○**김대중위원** 그런데 2년간 성과금을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죠. 2020년도는 성과금을 좀 받았고 작년에 아마…….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 외에 왜 연속으로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경영평가 라등급을 연타로 받은 이유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연타로 두 번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한 번은 다등급 받고…….

○**김대중위원** 다등급 두 번 받고 라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다등급은 두 번은 제 임기에 없었어요. 그 후에, 제 임기에 다등급 받고…….

○**김대중위원** 그러면 임기 2년 안에 있는 얘기만 할까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요, 다등급 받고 라등급이 최하위였는데 올해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희 최선을 다해서…….

○**김대중위원** 그니까 왜 다등급, 라등급을 받으셨는가 얘기를 해 보시라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사유. 그냥 여기 테크노파크는 미우니까 너는 다, 너는 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희들이 조직문화를 보면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

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김대중위원** 조직문화 개선이 안 돼서 다른 출연기관들 성과에 다등급, 라등급 받았어요?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희들이 워낙…….

○**김대중위원** 혁신성장과장님!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최형열** 예, 답변하십시오.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서 평가할 때 여기에 왜 평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뭐뭐가 어긋나서 다등급, 라등급 받았습니까?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창석입니다.

다등급을 맞은 것 자체에서 기관경고를 맞았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요. 기관경고를 맞아 가지고 라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2021년도 작년도에.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등급을 연속 2년간 맞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일정 부분 스크린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제가 거기까지는 스크린을 못 해 봤거든요.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업무보고 책자에나 감사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를 2년 동안 다등급 2년 맞고 또 라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사유는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서는 왜 우리 기관이 다등급, 라등급을 받았는가 사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유가 조직문화가 융합이 안 됐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창석** 그 부분이 전

부는 아닌 것 같고요. 조직문화라는 평가의 기준 자체가 깊이 있진 않을 겁니다.

○**김대중위원** 아니죠. 평가기준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맞고 사유가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직문화에 대해서 그런 평가 자체도 안 해 놓고 지켜만 봐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희가 조직이 막 확장이 되니까 성장통에 걸려 갖고…….

○**김대중위원** 조직이 확장이 되니까. 제가 그거 여쭙보려고 했어요.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조직이 확산된다. 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몇 개입니까? 수행과제. 예산은 1500억이고 수행과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64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64개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데?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건 세부적으로 하면 96개 사업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96개 사업을, 혁신과장님!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창석** 예.

○**김대중위원** 96개 사업을 여기 테크노파크에다가 전라북도 사업을 다 내려줍니다.

여기에 계시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전라북도 자체 사업들을 다 테크노파크에다가 사업참여, 뭐 여러 가지 해서 더 많을 겁니다. 그 96개 사업 외에 또 추가로 있으면 자료로 일단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직이 방대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못 한다고 하세요! 왜 못 한다고 말씀을 못

하십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런 사업 못 한다! 왜 말씀을 못 하세요? 96개 사업 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겠냐고, 현실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충분히 가능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조직 확산이 비대해서 다등급, 라등급 받았다고 하고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저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인력 가지고 96개 사업을, 이 진행하는 사업 외에 또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들을 다 테크노파크에다가 쥐 버리니까 테크노파크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다 일을 주지 마시든가, 안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따 오셔서 테크노파크에다 주시든가,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너무 일이 방대하면 못 받는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안 그러면 이 기관을 두 개로 쪼개든가 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너무 방대해.

자, 또 하나 여쭙볼게요.

우리 각 모든 센터에 보면 입주하는 시설들이 있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몇 개 동이냐고요?

○김대중위원 예.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몇 개 동보다 전체 합쳐서 123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3개 동이 있고.

○김대중위원 몇 개 동이 있냐고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건물 말씀입니까?

○김대중위원 예.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5개 동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5개 동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1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몇 %입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81.7%입니다.

○김대중위원 81.7%가 다 차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81.7%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기업 들어가면 몇 년까지만 있을 수 있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대개 3년, 최대 7년까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7년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기업으로 있다가 나가서 창업을 하셨거나 이렇게 하신 기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창업이 아니죠, 이미 창업한 업체가 입주가 돼 있으니까.

○김대중위원 아니 거기에서 더 확장돼서 정말 나가서 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렇죠.

○김대중위원 그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성공사례는 올릭스가 100억 정도고 옵토웰이…….

○**김대중위원** 아니요, 몇 개 업체만 있는
가 말씀만 하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나중에 서
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자, 여기 우리 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보
육지원센터 거의 유사하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일
단 하는 일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도민들의 피 같은 세
금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 하나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에 있는 말은 회장
님이시고 어디의 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타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
죠?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없습니까?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전문가시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도 위원
님하고 동감합니다. 전라북도가 경제력이
17개 지자체 중에서 12, 13위 정도 돼서 어
떻게든지 월드클래스라든가, 지금 우리가
성장사다리의 돋움, 도약, 선도, 스타, 글로
벌 강소기업이 있는데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좀 우
리…….

○**김대중위원** 그니까 사유가 뭐냐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사유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러죠.

○**김대중위원** 아, 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도가 경제력이 약하
니까 그러고…….

○**김대중위원** 도의 경제력이 약하니

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제 말 들어
보세요.

○**김대중위원** 말씀 잘 하셔야 해요. 도의
경제력이 약하니까 우리 입주기업이라든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던
기업들이 나가서 정말 잘 차리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
걸 못 한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게 아니
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잖아요.

○**김대중위원**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래서 대
학에서 혁신적인 교육을 해서 그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런 여력이 안 돼 있고…….

○**김대중위원** 대학에서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미국의 실
리콘밸리나 스탠포드는 100여 년 전부터 시
작해 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많은, 수도 없는 1500억 예산을 댈하러 줘,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다가 1500억씩 아무리
쏟아부어 줘도, 아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
면 기울어진 운동장에다가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 그니
까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위원** 원장님 그거 하실 수 있다
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 혼자
아니라 같이해야죠.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0년 동안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갖다가 수많은 업체하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많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전라북도의 경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성장사다리를 거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유가 경제력이 떨어져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는 거기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단 얘기에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요. 제 얘기는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스닥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가 기업유치하는데입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가 기업유치하는데예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유치할 수 있죠, 그럼요.

○김대중위원 과장님!

테크노파크가 기업유치하는 데예요?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창석 도 혁신 지원 기관이라서 함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랑 같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기업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김대중위원 또 여쭙보겠습니다.

귀금속장비 저쪽에 왕궁에 있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거기 센터 이름이 뭐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디자인혁신센터입니다.

○김대중위원 디자인혁신센터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여기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뭐니까? 주 업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주 업무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디자인센터의 역할입니다.

○김대중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 담당하는 제품이 라고 하는가, 이런 것은 어떤 제품입니까? 주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주 제품은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주로 귀금속이겠죠. 귀금속의 산업디자인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그런데 귀금속장비의 활성화를 홍보하고 다니세요? 설명회. 홍보해요? 장비 하라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장비도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장비 활성화 홍보 설명회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뭐예요? 장비 활성화 홍보 설명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장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대중위원 많은 기업이라는 게 도내입니까, 도 외입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도내의 기업도 있고, 도내 기업만…….

도 내외 다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도내에 귀금속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지금 질문하신 게 도내의 기업…….

○김대중위원 예. 도내만 쓰신다면서, 장비 활성화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하신다면 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도내에 귀금속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책자 떠들러 보지 마시고. 그거 머릿속에 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충분히.

아무리 책 찾아봐요, 나오시는가. 안 나온 다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약 3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300개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300여 개 업체.

○김대중위원 300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소상공인…….

그니까 등록했다가 빠져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김대중위원 그니까 이 장비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귀금속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도내에.

아니, 홍보 설명회 하려면 기업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몇 군데 업체냐고. 그 말한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100여 개 업체 됩니다.

○김대중위원 100여 개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거의 다 어디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주로 익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디자인혁신센터가 익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 홍보를 이 디자인센터가, 그 혁신센터가 생긴 지가 3~4년 됐을 겁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2018년에 생긴 겁니다.

○김대중위원 예, 3~4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홍보하고 다니세요?

지금도 홍보해야 되냐고, 장비 쓰라고, 장비 뭐 있다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그니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현장, 발로 뛰는 설명회를 하려는 것이죠.

○김대중위원 아니, 꼭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이 예산이 7억이에요, 7억. 귀금속장비 활성화 홍보 설명회 하는데 이거 연내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1년도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귀금속에는 시에서 1억을 매칭 받고요, 도에서 1억 매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2억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귀금속장비 활성화 홍보 설명회가 1억, 1억이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아니, 그 안에 포함돼 있죠. 홍보활동은 그 예산이 그 안에 포함돼 있고 전체가 2억이라는…….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는 올해는 7억 맞죠? 7억 아니에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역량 강화 사업에…….

귀금속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김대중위원** 디자인 운영센터 전체 운영이 7억이라고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운영이면 인건비도 포함되는가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총 해서 얼마입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사업비는 전체가 40억 정도 돼요.

○**김대중위원** 40억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운영사업 장비운영, 입주·공용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로 해 가지고 3개 사업에 돈 7억을 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운영비에는 저희들이 출장 가는 거라든지…….

○**김대중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정산서다 주세요, 정산서. 자문위원 돈 다 들어간 거 정산서 싹 주세요.

원장님 2020년부터 오셨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김대중위원** 2020년 것, 2021년 것 이렇게 주시고 3D 물어보겠습니다.

3D가 한참 유행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사양됐죠?

사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많이 보급돼 가지고 일반화된 것이…….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보면 장비 사고 이거 시제품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고 교육하고 거의 업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죠?

해서 이 3D프린팅 사업이 앞으로 이 부

분을 더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쭉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여쭙볼게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저희 기관이 혁신거점기관으로서…….

○**김대중위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십시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많이 일반화가 됐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이걸 축소해서라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도 하는 일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센터 만들고 장비 사고 장비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하는 업무가 그거지만 너무 비대해졌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테크노파크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있다. 해서 기관평가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다. 그러기 때문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지만 기업들한테도 그리고 원장님도 각 센터에 있는,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외부로만 다니시지 마시고 작은 센터까지 싹 한번 돌아보시고 입주기업들까지 싹 한번, 그냥 간담회 같은 거 마시고 스스로 한번 찾아가셔서 얘기 소리도 들어 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나중에 연말에는 우리가 너무 비대하니까 조직을 쪼개도 된다 아니면 못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이게 1500억이라는 예산이 성과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형열** 김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전 전라북도 선도기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중에 사실 선도기업 신청기준들 보면 필수조건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운영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선택조건을 R&D 비중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1%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기부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되는 사례들을 보면 보통 평균 5.6%의 R&D 투자 비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기업이 이 선도기업에 선정되는 기업들의 투자 비율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의 평균 R&D 투자 비율이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3% 정도.

○서난이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3% 정도 되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서난이위원 그럼 저는 여기서 자료를 보고 싶은 건 이 선도기업들이 어쨌든 선택조건으로 신청을 하려면 비중이나 이런 자료를 났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통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는지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도기업이라 함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R&D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점은 아실 건데 지금 지역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R&D는 거의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 그니까 매출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

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기업의 성장력을 더 담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그걸 제대로 나왔는가를 확인해서 그걸 갖다가 성공사례를 도출해서 그걸 갖다가 주워한데 전파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R&D를 투자해서 사업화해서 매출 신장도 올리고 고용 창출도 하고 그런 사례가 다는 아니지만 더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다른 선도기업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오히려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선도기업 신청기준의 트랙을 나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매출 대비 R&D를 5% 정도 한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지원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실 1%라는 거는 거의 형식적인 상황이잖아요. 자체적으로 R&D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가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걸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도 전체, 이번에 중기부 사업도 지역혁신 선도기업 전국에 54개 선정됐는데 전라북도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요구드린 거는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린 거고 그다음에 혹시 신청기준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차피 올해는 지나

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형열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신성장동력산업 견인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나인권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인사드립니다.

농산경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급속하게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도 이 같은 패러다임 쉬프트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단·본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단 노윤식 단장입니다.

다음은 미래기술연구본부 김영균 본부장입니다.

다음 융합기술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도의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의 조광희 과장도 같이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

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권**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쪽에 예산 지금 집행상황이 있는데요. 자본적지출이 집행률이 4.1%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 자본적지출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사업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새만금 테크비즈프라자를 올 8월 달에 착공한다거나 관련된 장비들을, 저희들이 모든 장비들이 거의 다 외국산입니다. 외국에서 장비들이 선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그때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자금은 하반기에 아마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있어요. 딱 보더라도 지금 부족한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전략기획단에 13명 중에 7명이 부족하고 미래기술연구본부가 39명 중에 10명이 부족하거든요. 1, 2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결원 24명인데 그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안전성 문제 이런 쪽에 관련된 직원들이 필요한데 지난 6월 초에 도로부터 정원을 20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달에 받아서 지금 채용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전에는 정원이 20명이…….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이번에 늘었습니다.

○**오은미위원** 지금 그동안에 또 운영을 해 보니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충원이 되는 거네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책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들을 다 감당해 나가려면 아까 배터리, 연료전지, 전기, 스마트 이런 쪽에 관련된 인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인력을 정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시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채용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면 충원 인원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전문분야잖아요, 사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분야가 우리 지역에서 좀 소화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신산업과 관련

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배터리라든가 전기전장, 자율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전국 베이스로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 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지역 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이런 인재들을 졸업시킨, 배출시킨 대학이 아직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지역 할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선은 전국 베이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은미위원 우리가 다양하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한다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여러 기관들에서 하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젊은 인력들이 없어서 늘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인력들이 결국 또 대학에서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양성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도입을 해서 지역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전문성을 익혀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제가 아까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에 반드시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 꼭지를 반드시 넣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꼭 인력 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걸 의무화시켜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이 되면 조금 더 형편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꼭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지역을 좀 따지는 건 그렇긴 한데 워낙 또 우리 지역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맞습니다.

○오은미위원 젊은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정작 전문인력을 뽑으려면 그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인력들을 전문인력들을 이렇게 계속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시스템도 이제 앞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연기관들도요, 도 출연기관들도 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는 이제 혁신도시의 지역 할당 제처럼 저희도 지역 할당해서 지역 사람들, 양성한 사람들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고용돼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전문인력들이잖아요.

이 인력들이 더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만족해서 또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지는 않는가, 이직률은 어떨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제가 제일 좀 고민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분야 또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우리 연구원들을 한 3년 정도 채용을 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개별적인 연구원들을 하루에 2시간씩 면담하면서 설득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한 게 제 일입니다, 지금.

왜냐면 아시는 대로 저희들보다 처우가 괜찮고 여건이 좋은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오피들이 있는 것 같은 기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사실은 원장한테 있습니다.

원장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솔직히 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도하고도 상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들의 인력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우리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만든다 하면서도 일하기 좋은, 안정적으로 떠나지 않고도 다른 데, 다른 직장을 넘보지 않고도 또 유혹을 받아도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직도 좀 요원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전문인력이 없어서 또 외지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좀 그런 안정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진짜 여기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뭔가 만족스러운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오라고 하고 사람을 쓰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된다 생각하고 좀 그 부분에 우리 원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제가 제 과제로 알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요청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은 부족함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요, 어차피.

그리고 보면 지금 본원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데 전체 만약에, 지금 다 입주 기업이 그 공간에 다 채워져 있나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다 찼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럼 12개 업체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제니스코리아는 고용인력이 없어요, 지금 3년, 2020년부터.

이게 뭐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게 연구소인데요, 연구소인데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인력채용으로 파급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은미위원 그런데 연구소라 하더라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아니 상근인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오은미위원 아, 상근 인력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거기 관련된 연구소장은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늘 해야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오은미위원 그러면 연구소장만 있는 거예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지금 현재는 저쪽 다른 기관에 있는데 본 기관이 있는데 연구소, 연구소.

○오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가 제대로 돼요? 이게. 그냥 입주만 한 상태이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러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조금 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날 거 같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1,

2년 이런 연구라는 것이 당장 1년, 2년 만에 성과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사람이 있어야 뭔가 연구를 하고 그게 시행착오를 겪든 어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상주하는 사람이 없이, 연구라는 것도 누군가가 같이, 혼자도 물론 1인 기업도 있고 요즘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보면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래서 위원님, 이분들하고는 저희들이 R&D를 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그걸 발미로 해서 너희들 사람 채용해서 여기서 키워라라는 것들이 저희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이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걸으로 봤었을 때는 ‘어, 이게 뭐지?’ 하는 의문점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소가 주로 그렇기는 한데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연구소는 연구만 하고 또 어느 연구소는 또 매출이 있기도 하고 이 차이가 뭐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R&D가 기획 단계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실상으로 매출이 발생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R&D를 수행하게 되거나 또는 과제를 말하자면 수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되면 이 부분이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산업과 관련된 것은 연구소를 여기다 유치를 함으로써 그게 나중에 여기서 바탕이 되니까 여기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분들을 접촉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연구소라 하더라도 손만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수익이 있어야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뭔가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임대료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지금까지는 임대료 이런 거 내는 데는 아직은 더 큰 애로는 없고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더 고민도 하고 치열하게 같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그래도 본원에 입주한 기업들하고는 늘 상시적으로 만나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매출도 없고 뭔가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그래도 뭔가가 전망이 있고 좀 그런 기대,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래요. 대부분 보면 뭔가 투자가 되고 하게 되면 막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부풀려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에 대해 충분히 옆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하면서 끌어주면서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해서 나중에, 어차피 그건 성과로 결국에는 또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또 원장님이 워낙 그 방면에 노련하시니까 잘해 주시라 생각하고 대신에 믿고 맡기는 거죠, 사실요.

저희도 가서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지만 원장님께서 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12개 기업 중에서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게 전망도 없고 한데 이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기업도 있나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제가 단언컨데 그런 기업은 있지 않고요. 아까 연구소 5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저는 크게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 그런 기업을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유치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리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매출이 당장 여기에서 매출이 안 나는 것이 표시가 되고 이 사람들은 본사에서 분명히, 본사에서 지금 봉급을 받고 있는 연구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연구소가 고리가 돼서 그 본사를, 제 속내는 그 연구소를 고리로 해서 신뢰를 쌓고 그래서 그 연구소가 전북에 연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아까 이 보고서에 보고드렸던 연구소를 유치해서 그게 키우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씨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이씨스가 처음에 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해 갖고 거기 신뢰 쌓다가, 제가 송도를 한 7번 정도 찾아가고 회장을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1000억 원으로 투자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리로 저희는 인식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은미위원 아, 예. 연결고리가 또 그렇게 있었네요, 그것까지는 몰랐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한데, 하여튼 원장님이 좀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시고 하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그런 또 연구소들이 제 역할을 해 내고 이게 전북의 자동차 발전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조금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수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가 그대로만 된다면 최고 주력 사업으로 떠오를 정도로 모든 마인드라든가 모든 시스템, 아니면 협치 다 좋아요.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잘 업무보고 받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관심 있는 게 특장차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볼게요, 특장차.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가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GM이 왔다가 다시 철수하고 다음에 명신이 들어와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그래도 주력으로 자동차 사업이 상당히 활력적이고 주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우리가 특장차라면 특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차를 특장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을 봤을 때도 LPG라든가 LNG 수송선,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고부가가치를 하는 조선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

잘아요. 우리도 승용차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특장차 부분이 수요가 무궁무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만 하더라도 화재 진압하는 데 여러 방법과 방안이 있겠지만 사다리차라든가 모든 부분이 특장차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고부가가치는 아마 특장차가 더 있지 않냐, 승용차는 많은 부분에 경쟁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승용차하고 특장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특장차가 먼저 상용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상용차가 먼저 승용차보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승용차보다 상용차가 먼저 상용화될 걸로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이렇습니다. 상용차는 특정 지역에서 기점에서 종점까지 거의, 말하자면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다만 승용차는 너무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다 끌고 간다는 것은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수요 부분에서는 사실 승용차가 수요가 많잖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자율주행 환경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또 금융 서비스라든가 이런 법 제도 면에서 너무 구축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상용은 주어진 구간에서만 하기

때문에 좀…….

○김희수위원 단순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하기 쉽고 빨리 이렇게 실용화됐다, 상용화될 수 있다 이거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희수위원 그건 기다려봐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특장차를 만드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보조자료 38쪽을 보면 저희가 지금 호원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희수위원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데 여기는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이 인력 양성과 관련된 소요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기준에 4건으로 해서 총 22명이 양성이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요.

그런데 2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연결해서 취업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교육만 시킨 겁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저희들이 상용차 또는 특장차와 관련된 인력 양성은 크게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할 요원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8쪽은 전문인력과 관련된 대학생들 양성인데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폴리텍대학에서 인력 양성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린 보고서에 들어 있고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으로 양성

되기 때문에 취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제작, 전장기술 설계 제작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도에 43명을 취업을 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특장차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미래가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또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만 이 특장차가 계속 치고 나가서 전라북도의 주력 사업 또 전라북도의 산업 쪽에 주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특장차에 대한 연결되는 교육, 그런 시스템이 좀 아직은 미비하지 않냐는 생각이, 아까 원장님 말씀은 지금 특장차가 금방 상용화되고 또 이렇게 자율주행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이야기하면 그런 인재가 배출돼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술시스템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앞으로 특장차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가속화시켜 가지고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참고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가 9월 2일날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김제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국회에서 특장차와 관련된 종합적인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께도 그 관련된 사항도 보고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시킨 안들을 만들어서 국가사

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사업도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인력 양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현재 특장차 1단지가 100% 분양이 돼 있고 2단지가 조성 중인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2단지 지금 분양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청취불능) 원래 1단지는 몇 평인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10만 평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1단지도 10만 평, 2단지도 10만 평?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위원장 나인권** 그럼 지금 현재 특장차 1단지가 언제 조성이 완료가 됐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2년 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22개 기업이 풀가동 중에 있고 2단지 10만 평은 17개 기업이 입주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3단지, 4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30여 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준공을 했으면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준비해 와서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적절한 시기에 사실은 특장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 딱 맞춰서 이 단지가 조성이 됐고 그때보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지금 발생

한 것 같아요.

캠핑카도 아까 말씀하신 사다리차든지 많은 분야, 여러 분야의 특장차들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가 1단지 하자마자 그냥 바로 2단지가 지금 가고 2단지 했는데도 지금, 이미 MOU 체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 17개 이상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그래요. 어쨌든 새로운 산업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는 산업분야인데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또 새로운 자동차 산업이기도 한데 연계해서, 상용차와 연계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더 애써 주시고 다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특장차 단지를 직접화된 데가 여기 말고 또 좀 큰 데가 더 있습니까? 혹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국내 유일하고요, 저희들 포부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굴지의 특장차 단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포부입니다. 또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나인권 그렇게 추진해서, 어쨌든 특화시켰으니까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다른 지역에 뻗기지 않도록 어쨌든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 관련해

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자동차 산업하고 환경부의 가장 고민이 배터리 관련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기술들이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이 되면 지역 내에서 기술을 활용할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지금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메인 주관 기업이 명신입니다.

주관 기업이 명신이고 여기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접목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전북으로 끌고 오려고 그런 연계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사실 지금 폐배터리가 나올 게 2030년에 아마 10만대까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폐배터리를 수거 체계가 사실은 공급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사실은 저희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희들 영역이고, 왜 그러냐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아까 그렇게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부하고 지금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제여서 부득이 그 부분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난이위원 사실 저는 고민되는 게 정읍의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되면 어쨌든 이 체계가 지역 내에는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계속 마찰

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터리를 잘 만들고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해체도 잘하고 재활용까지 기술 보유를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수거 체계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면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쨌든 사회를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이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곳에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 체계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정읍 쪽이 이번에 됐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를 완전히 해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산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국내 대기업하고 투자해서 지금 현재 그게 그런 시스템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그걸 시스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파트와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관련된 부서들하고 조금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될 수 있는 정책 건의들, 활동들을 지역 정치권들하고도 연대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순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로 보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력이 있는 사업일 거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분명 이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측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폐배터리가 정읍이라는 곳에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서 가장 쓸 때까지 잘 해체해서 쓰고 가는 공간까지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주력적으로 보고 싶으니까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또 나중에도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소명감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반갑습니다. 군산서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군산 출신 김동구입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 중에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공감합니다.

○김동구위원 우리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이 명신, 대창, 에디슨모터스, 코스텍 그런가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업체들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산업들을 국내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가 대기업들이 다 완성차 업체로 플레이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만 유일하게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에서 걱정들을 2배, 3배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টে을 개발해서 신차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형 일자리가 MOU가 체결되고 명신이 들어온 지가 지금 만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집트에 미니버스를 수출하는 그 계약이 성사된 것까지는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상당히 진전된 성과라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에디슨모터스처럼 약간의 터덕거리는 경우가 있고 대창모터스는 올 11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코스텍은 지난번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예정된 계획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그게 시장에서 현재로 실질적으로 성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넘어야 될 산들이 솔직히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렇죠.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많이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민선8기 도정목표 첫 번째가 기업

유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 육성에 미션을 가지고 있는 융합기술원의 기업유치 전략이 있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이 민선8기 도민경제 부흥의 주력산업 대전환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국비라든가 또는 도비, 시·군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R&D사업을 하거나 장비를 구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게 반드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하고 연구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송도에 있는 이씨스를 유치를 해서 1000억을 투자하게 했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DL이라고 하는 기업이 수소 탱크를 운반하는 기업인데 저희들이 규제 특구 사업과 같이하는 R&D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을 새만금에 107억을 투자해서 탱크를 제작하는 공장을 짓도록 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 이견 외지에 있는 기업을 제가 유치한 사례고, 지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진우에스엠씨라고 하는 특장차 기업 같은 경우는 소형 소방차 0.6톤짜리 소방차 그다음에 세탁차, 청소차들을 되도록 같이 만들면서 확장 증설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연계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각종 기업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전북에 연고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심층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인력 문제

입니다. 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분발해서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인력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저희들은 이공계 인력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악영향이 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인력은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고 우리 군산 조선까지도 상당히 인력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기업까지, 아니 외국인들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거 같은데요. 그 부분 더욱더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전북에서 앞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새로운 환로는, 아까 말씀드린 특장차 산업 그리고 대체부품 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대체부품 산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경기도 쪽에서 욕심을 내고 경기도 도지사가 저희들과 MOU를 체결하자고 오퍼까지 오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외지에서 탐을 내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데에 말하자면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체부품의 최고, 말하자면 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현재는 국산화 그리고 외국산 대체부품까지 개발하는 작업들을 해당 시·군하고 도와고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기업이 오고 싶어도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원장님 마인드 믿고요, 저희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원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자동차 부품 만드시는 데는 성과가 다 좋을 거 같은데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이…….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 물어볼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중위원** 익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들은 왜 인력을 반절씩 감축하고, 아세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실상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익산의 어디어디 업체가 인

력을 감축했는지 아세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기업들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다녀온 기업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티앤지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세명테크 그다음에 또…….

○**김대중위원** 지금 대표적인 데도 안 갔다 오셨는데 제가 봐서는 익산의 자동차, 익산뿐만이 아니라 완주, 제가 군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산하고 완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들은 3분의 1에서 50%씩 인력 감축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말씀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같이하는데 현대차 잘 아시는 대로 현대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기업들의 부품 수급난 그리고 현대차…….

○**김대중위원** 부품 수급난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아니 부품 수급난 때문에 그 회사가 인력을 50%씩 감축하고 이런 건, 익산에 있는 만도도 계속 희망퇴직 받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전라북도 자동차 미래산업은 정말 엄청난 장밋빛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그런 얘기들은 전혀 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다 장밋빛이지.

근데 실상 거기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

거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기술력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인력 감축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데에 대한 전혀 고민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가 자동차의 도시가 돼야 돼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몇 군데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축약해서 보고만 드리고 제목만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는 트랙이 하나는 먼저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느냐가 투트랙의 하나고, 두 번째는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전환할까 두 가지…….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런 업무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저기 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있는 그래도 근로자들과서 기술력도 있고 근로자, 그나마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점점 30%, 50%씩 밀려 감축하고 있는 이 실정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장밋빛만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인식 같이합니다.

○**김대중위원** 두 번째, 우리 자동차 주행시험장에 대한, 익산 한 번 다녀서 전체 부품기업들 인력 감축한 상황과 그 사유 한번 다 정리해서 주시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대중위원** 자동차 주행시험장에 한 번씩 쓰면, 거기 수입은 얼마씩 들어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부품 그리

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고시를 해 봤습니다.

○김대중위원 아니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에 수입 얼마였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작년에 10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김대중위원 10억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대중위원 원래 목표는, 이걸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아니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과정은 신차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걸 시험하고 평가하고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들이 조금 준 것만은 사실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그 금액이 적어서 부품시험장에 있는 수입이 줄어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적어서. 줄은 게 아니라 적어서 여쭙보는 거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위원님 올해는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폐배터리를 이게 지금 재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재사용 또는 재활용.

○김대중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두 가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파트가 있고요, 폐배터리를 폐품을 썩 뜯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활용하는 것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이것이.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사용으로 나와 있길래 여쭙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우선은 이걸 10년 정도 쓰면 배터리의 수명이 70% 정도로 줄어드니 이걸 그대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갖다가 중장비 또는 2차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또 활용이 된 한 5년 정도 쓴 다음에…….

○김대중위원 그걸 기업이 한다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기술 개발이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대중위원 아니 그 기술 개발을 이걸 어디서 합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명신이 주관 기업이 되고 저희들이 관련된 기술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기술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명신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자동차기술원 옆에서 서포트하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모았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6개 기업입니다.

○김대중위원 6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대중위원 명신이 대표고 그 밑에 있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아마 재사용할 겁니다. 재사용하는 거에 대한 연구만 할 거예요.

왜? 리사이클링 재활용은 엄청난 기술이나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몇 년 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예요, 재활용은.

재사용은 뜯어다가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걸 뜯는 거고, 재활용은 ESS는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미세하게 준 것을 장치를 기술력으로 뽑아서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재사용은 전혀 판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사용은 하시면 안 돼요. 그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재활용,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하는 연구를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저희들이 리유즈하고 리사이클하고 두 가지 개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된 말하자면 이런 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업들 6개를 모아놨으니…….

○김대중위원 있죠?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그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숙의도 하고 전력을 다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노동 집약적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게 거기서 재사용이 아니라 재활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재활용할 만한 업체도 세계적인 우리 10대 업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예.

○김대중위원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 하여튼 기

업들하고 충분하게 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혹시 추가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나인권 의사일정 제5항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혁신성장정책과 최창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의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남영 원장님께서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블록교체

형 한지 면상 발열장판 개발사업, 기간이 60개월, 5년 기간이었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최형열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고 올해가 5년 차 사업인데요.

주요성과가 탄소발열 페이퍼 학술발표 1건, 맞나요?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주무 담당 본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아니, 원장님이 설명하세요.

주요성과가 탄소발열 페이퍼 학술발표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것은 말이죠, 지금 5년 과제으로써 시행처는 과정통보고요, 주관기관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참여기관으로써 시험 분석, 물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일정 부분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올해 성과로써는 이 관련해 가지고 시험 분석에 대한 학술발표 1건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좀 성과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수행을 해야 사업비가 나오고 계약이 완료기 때문에 저희는 맡은 분야의 파트 부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최형열위원 보니까 거기에서 하더라도 그 성과가 다른 게 있나요?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이

것은 계속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예요.

○최형열위원 거의 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원장님.

60개월 기간 동안에 7개월 정도 이제 남은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는 그 7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다 마무리하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열장판에 대해서는 시험 분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해 가지고 최종 점검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 연구 학술발표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형열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한 7개월 동안 잘 추진해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반갑습니다. 군산 출신 김동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섬유산업이 과거에 우리들의 근간을 이끄는 산업이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는데요.

최근 우리들의 섬유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이나 첨단 섬유산업 전환 등을 통해서 ECO 중심의 지원 산

업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도의 지원 산업은 그 규모가 작아서 지원 효과가 본 위원은 미비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로 R&D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기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일부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북지역 도에서 위임받은 사업이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가 안전보호 기술개발·역량강화사업 그다음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요.

예산이 보통 과제별로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산업으로써의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마중물 역할 정도 그 정도 있다보니까 저희도 조금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도에는 도 나름대로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한 것 같은 데요.

앞으로 도하고 좀더 긴밀히 소통을 해서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예산 확대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46쪽 활성탄소 섬유 기술 지원 기반구축사업이 금년에 산업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가 사실 익산지역 내가 그동안은 니트섬유 위

주로 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BYC라든가 태창이라든가 쌍방울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경쟁력 약화로 해서 다 해외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그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타 사업으로 안전보호 융복합 기술센터로 해서 우리가 산업용 섬유라든가 특수섬유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연계시켜서 할 만한 사업이 뭔지, 이 사업은 사실은 맨 부지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시켜서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낼까 하는 것이, 고민 끝에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 섬유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걸 산업부 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일단 그게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고 해서 올해 최종 평가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기존의 활성화 섬유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활성화 섬유라는 것은 우리 천연섬유 계통 셀룰로오스 계통의 섬유를 갖다가 약 300도에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킵니다. 안정화시켜 가지고 한 700도에서 산화공정을 거쳐 가지고 900도에서 활성화시키면 섬유가 타버리는 게 아니고 섬유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도성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흡착성이라든가 내식성, 내열성 이런 것이 새로운 특성을 가진 면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염성 바이러스라든가 유해물질 제거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공기라든가 수질정화 같은 거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

고 소방 보호라든가, 타지 않기 때문에. 섬유인데도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보호구라도 쓸 수도 있고 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스마트 의류에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용 같은 패치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 전극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용 용도가 큼니다.

그래서 용도가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관내에 있는 염색업체라든가 편직업체라든가 이런 봉제업체들이 응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바로 기술개발을 해서 응용만 한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도내 사업이 그동안 임가공이라든가 저부가가치 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거해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약 한 120명 정도 고용하고 매출 한 400억 정도 아마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내 관내 섬유 기업에서도 이걸 응용해서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거 잿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김동구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업무보고 보조자료 59페이지 좀 질문인데요.

저희 창업보육센터 입주현황을 보니까 이 기업들이 대부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미 다 사업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입주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아닙니다. 참고로요, 창업한 사람들이 보통 1인 기업 아니면 1인 이렇게 해서 기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난이위원** 제가 몇 개 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름이 같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2, 3개는 다 타지에 이미 사업체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타지에요?

○**서난이위원** 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어떤 기업이?

○**서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인원이 1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창업보육센터에만 사업지 소재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거의 아닌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원래 영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검토 좀 하고, 여기는 지금 사업자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잠깐만요, 원장님!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이크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실무자한테 설명을 정확히 듣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아마 동일회사이지 않나 그렇게, 동일 1인의 회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인은 아마 틀릴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주식회사나 이런 회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1인 기업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창업기업.

○**서난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저는 사실 이 회사들이 보통 창업보육센터에 처음 입주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된 3년 이내의 기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데 소재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입주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 이게 틀리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면 다른 자료를 오히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비교해 보면 좋을 거 같거든요.

이건 제가 자료로 좀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일단 그거 확인을 해서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위원** 나갔다 와서.

지금 우리 전북, 특히 전주가 한지로 해

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지산업, 특히 한지는 닥나무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생산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그 한지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류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원료를 조달 받고 있는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지는…….

지리산 한지에서요, 거기에서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은미위원** 펄프를 수입하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대부분 수입을 해 가지고…….

○**오은미위원** 우리 국내산이 아니라.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국내산 아니고요, 국내산도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 수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뜯니다. 종이를 떼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용해서 저희는 섬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로 가닥을 내 가지고 쌍영방적에서 원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 만든 걸 가지고 양말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혼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지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좀 써보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뭔가 한지라는 거 기분확상으로 그러기는 하더라도, 이게 또 우리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비싸기도 하기도 하고 접할 수 있는, 쉽게 아무 데서나 접할 수 없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지산업, 뭔가 한지를 만들어, 아까 패션쇼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색 갖추기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게 더 시장이 확대되고 뭔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축소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때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전통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주에서는 한지는 아마 전통한지 주로 가정이나 이렇게 쓰고 하는데 용도로 아마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는 데요.

저희 산업용 한지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는 의류로 쓰라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 가격이 비싸고 또 한지에 약간 단점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최근에 한지 관련된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요새는 한지를 만드는 원사, 원사를 만드는 쌍영방적에서 전화 받기가 두렵다, 너도 나도 먼저 주라고 하는데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오은미위원** 공급이 달리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지금은 그 정도까지 와 있고요.

○**오은미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만 그러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한 업체에서, 그 실은 거기서 만들어 냅니다,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창고에도 그래서 지금 상당한 업체들이 한지에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펄프 원료가 기존의 한지하고 우리 닥나무 생산가하고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수입산하고 국내산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약 3배 정도 납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 간격을 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그것은 그 제품을 한지사를 좀 단점을 응용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가격의 일반 소비자 10원짜리, 20원, 100원을 보지 않는, 그래서 1만 원, 2만 원을 벌 수 있는 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도 그게 확산이 더디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술개발의 입장에서 마케팅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들로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쪽에 홍보는 일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성은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원료 자체가 계속 수입에 의존하는 거고 그러면서 전통의 어떤 한지라고 하는 게 참 무색하죠, 사실. 생산부터가 우리 걸로 해서 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돼야 우리 거 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생산까지 여기서 책임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죠. 그만큼 우리 예전에 전통의 그런 어떤 생산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한지산업이나 이런 걸 좀더 발전,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가 한지산업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계속 뭔가 축소되는 것 같고 계속 일반인

들은 접할 수 없는 또 고가의 어떤 상품들을, 오히려 더 진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가 있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앞으로, 예전에도 제가 활동할 때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주문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명맥을 유지하고 전북만의 어떤 특화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한지산업이 아닌가 해서 좀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한번 더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들도 한지사에 대해서 산업화하는 데 확장시키는데 측면에서는 좀더 우리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전주시에서는 한지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한지에 대한 것은 전통적인 용법에 따라서 우리 국산 닥나무를 활용한 한지산업도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산업용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에 접목되는 분야는 주로 수입 용품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전주에 쓰는 한지는 대부분 전통적인 용법에 따라서 한지 뜨고 수공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섬유 의류 계통에는 주로 수입산을 쓰지만 다른 만들어낸 것에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전통한지

용법에 따라서 국내산 원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년에 니트&한지섬유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이게 열렸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작년에 온라인을 올렸습니다.

○오은미위원 온라인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 효과가 무엇이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것은 우수 디자인을 발굴시켜 갖고, 첫째는 한지에 대한 인식 제고죠. 한지가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 의류에서도 다양한 형태로써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걸 제품을 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디자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알기 때문에 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해서 확대시키는 쪽이 강하다고 봐요. 가장 큰 것은 인식 제고입니다, 인식 제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4500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오은미위원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시비가 있어 가지고요, 다 합쳐가지고 한 4500 되는데요. 그 정도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경진대회와 연계시켜서 좀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확대시켜 가지고…….

○오은미위원 원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성이 선정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시회도 지원을 해 주고 해외 전시회에다 출품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제공해 준다는가 그런 쪽까지 나가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주무과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은미위원 이런 경진대회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아까같이 해외에도 나가고 그것이 또 어떤 실용화돼서 어떤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일반 대중들도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오은미위원 그러려면 더 그것이 아까처럼 해외로도 진출하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그 디자이너나 이걸, 그런 분들에게도 끝까지 좀 뭔가 사후 책임도 같이 질 수 있게 해야 이게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지, 그냥 제품 하나 내고 전시하고 패션쇼하고 딱 끝나게 되면 이건 아무런 성과가 남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될 거 같으니까요, 그런 점도 연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한말씀 동정심에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980년도 중반에 모 기업의 섬유 계통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참 잘나갔습니다.

전주 시내를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지금 하향산업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지금 김남영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분명히 섬유가 하향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수요가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면 또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님하고 오은미 위원님이 거론했지만 한지와 연관되는 또는 발열장판이라든가 이렇게 보호구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찾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느냐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섬유는 힘들다, 어렵다, 하향산업이다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또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남 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특별해야 살아나잖아요, 특출해야 되고 뭔가 한 가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섬유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과 접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또 보호구 쪽으로도 안전보호구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 사업도 좀 했는데 거기에도 충분한 시장 개척이 있거든요.

아까 소방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도 커튼도 방염 커튼을 많이 쓰는데 그 커튼도 방염 중에서도 또 한지하고 접목해서 아름다운 방염 커튼을 한다든가, 지금 저희 사무

실도 방염 커튼이 있지만 조금 딱딱해요, 우중충하고. 이런 연구를 해서 충분히 길을 찾으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의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 연구원이 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계시니까,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또 개발해서 제2의 도약 또 제3의 도약을 한번 바라는 그런 힘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동정심이 많이 나네요, 제가 섬유 쪽에 근무를 해서 그런가 몰라도.

한번 그러기를 바라고 앞으로 좀 지켜보고 저도 관심을 갖고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잠깐 잘 몰라서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블록교체형 한지 면상 발열장판 개발 보조자료 11쪽에 있는데 이 장판에 개발이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버스승강장처럼 그런 곳에 쓰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정에서 탄소 발열장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양해하신다면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용완입니다.

한지 면상 발열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블록교체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대리석이 한 블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석을 교체를 할 때 보면 하나씩 블록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도 온열장판 기능을 갖는 블록 형태의 교체 가능한 탄소섬유하고 한지하고 결합된 면상 발열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과제고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온열복대라든지 그런 건강용 제품으로도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대에서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그러니까 가정에서 현재 보일러를 쓰거나 전기 필름을 쓰거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발열 한지장판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실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시제품은 개발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나인권 현재 개발이 돼 있고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시제품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제품을 만들려면 기업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산학협력단 안에 지리산한지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다른 마케팅 업체도 한 군데 더 들어와 있어서 지금 시제품 만들고 시제품 개량하면서 마케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기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 안전인증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FITI시험연구원이 들어와 있어서 안전인증은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내년 초반, 전반기에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고 봐야 되나요?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이 사업이 과기부 사업이거든요. 과기부 사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기초연구에 관련된 중점된 사업이고, 그래서 SCI 논문이나 논문 위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시제품 단계에서는 내년 초나, 아마 홍보 마케팅까지 하려면 내년 중·하반기 정도 돼야 계속, 안전인증은 아까 말씀드렸다고 피전기안전에 대한 검증이 돼야 이게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가 블록교체형 한지 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시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열복대라든지 간단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쓸 수 있는 어떤 온열패드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인권 다양한…….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다양한 제품으로, 온열제품은 지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권 알겠습니다.

잘해서 실용화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술 혁신을 통한 섬유산업 고도화와 신소재 개발 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5.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6.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출석위원

나인권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서명위원

나인권	최형열
-----	-----

○출석공무원

<혁신성장산업국>

국장	전대식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창석
주력산업과장	조광희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지형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세영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경영지원실장

과학기술진흥단장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스마트제조혁신단장

디지털융합센터장

전북디자인센터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전략기획단장

미래기술연구본부장

융합기술연구본부장

기업상생협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전략기획본부장

연구개발본부장

행정지원실장

○전문위원

김종식

양균의

이송인

문성식

신진욱

이영춘

김영권

유기현

최상호

남궁재학

이성수

노윤식

김영균

사정환

방동훈

문남수

김남영

정우영

박용완

장재호